

폭넓어지는 外國語辭典 편찬

러시아·아랍·스페인·터키·印尼語 등 다양

언어란 한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본 전제다. 그러나 문화적 문맥이 서로 다른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외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그 언어에 대한 어휘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여간 방대한 작업이 아니어서 선뜻 손대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국내 최초로 2종의 외국어사전이 나오는 등 대학의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외국어사전 편찬작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학계의 반가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露韓辭典」 등 2종 출간

최근 대학이 중심이 되어 간행된 사전은 고려대 러시아문화연구소가 펴낸 「露韓辭典」과 명지대 아랍어학과에서 펴낸 「표준 아랍어-한국어 사전」.

「노한사전」은 고려대 董玩교수와 金鶴秀교수가 편집책임 맡고 착수 7년만에 펴낸 국내 첫 러시아어 사전. 이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러시아 어문학 및 문화연구가 시작된지 30여년만에 이루어진 결실이다.

러시아문화연구소가 이 사전의 편찬에 착수한 것은 지난 80년 3월. 그동안 국내의 노어노문학계 학자들이 총동원되다시피한 이 사전은 露英사전, 露日사전, 소련에서 간행된 露韓사전, 평양에서 나온 露朝사전을 참고하고 특히 일본의 이와나미版 야스기(八杉)사전을 모델로 하여 이들 사전의 결함과 오류를 수정하고 1만단어 가량의 어휘를 보충, 약 11만 단어를 수록했다.

이 사전은 속어·폐어·구어·복합어·동의어 부문에 충실을 기했고, 러시아어의 발달사·발음·인명과 애칭·지명 표기법 등을 부록으로 실었다.

사전편찬의 중추역할을 한 김학수교수는 “지난 태평양학술대회에 참가했던 소련 학자들도 이 사전의 규모와 치밀성에 놀랐다”며 “앞으로 공산권문제, 러시아·슬라브권 연구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노어사전」은 1760면, 4×6배판과 신국판의 두가지 크기로 출간됐다.

또한 명지대 李鍾澤교수가 편집책임 맡아 간행한 「표준 아랍어-한국어 사전」은 우리나라 대학에 아랍어과가 설치된지 23년만에 나온 첫 아랍어사전이다. 우리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랍어권 사전으로는 출간이 늦은 편이다.

문화적 문맥이 다른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듯 고도의 전문성과

치밀성을 요구하는

외국어사전 편찬이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3년동안 李교수 개인의 작업으로 완성된 이 사전은 총 3만단어가 수록됐는데, 특히 어휘에 비해 다양한 의미와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아랍어의 주축을 이루는 동사에 대해서는 그 뜻을 세밀하고 정확히 밝히고 있다. 부록으로 아랍어 그림사전, 西曆·아랍曆 대조표를 실었다.

李교수는 “사정상 현대간행물을 읽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사전 규모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아랍어 사전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대학은 아니지만 최근 개인이름으로 간행된 사전도 있다. 스페인어문화원장 金忠植씨가 14년간 각고 끝에 펴낸 「韓西辭典」이 그것. 그동안 西韓사전은 몇종 있었으나 한서사전으로는 국내 처음이다.

이 사전은 현대인의 일상 국어생활에 필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약 4만단어를 표제어로 하여 복합어·파생어를 포함, 8만여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현대언어에 많이 쓰이는 어휘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학술어·전문어·우리말이 되다시피한 외래어·성귀·관용어·어려운 표현·특수한 표현도 수록했다.

외대 등 각 대학에서 편찬 중

대학이 중심이 되어 사전을 발간한 것은 외국어대가 그 효시를 이룬다. 외국어대는 65년 서반어과에서 「西韓辭典」을, 69년 이태리어과에서 「伊韓辭典」을 내놓았는데, 이들 사전의 출판은 외대출판부에서 맡았다. 또 75년 한국불어불문학회가 펴낸 「韓佛辭典」은 외대 김영호교수가 산파역할을 하고 외대출판부에서 출판한 것.

「서한사전」은 지금까지 13판을 거듭하면서



독자들에게 친숙한 사전이 됐고, 8판을 찍은 「이한사전」은 유일한 존재. 특히 「한불사전」은 이 방면 최초의 사전으로 내용이 정지하여 78년 문공부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하고 한국출판문화상 최고저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대학에서 준비 중인 사전도 다수 있다.

외국어대에서는 각과별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리되지 않은 28개 외국어에 대한 사전을 단계적으로 펴낼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준비 중인 것은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월남어, 스웨덴어, 화란어, 스와힐리어 등이다.

외국어대의 이들 사전편찬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어 사전계는 매우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외대 출판부는 「터키-한국어 사전」과 「인도네시아-한국어사전」을 올해 안으로 간행할 예정이다. 「터키-한국어사전」은 터키어과 서재만교수가 10여년간 힘겹게 추진해오고 있는 작업. 재정 지원이 없는데다 글자꼴도 활자화되어 있지 않아 제작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터키어 사전이며, 수록어휘는 중사전 규모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한국어사전」은 인도네시아어과 안영호교수가 2년여 걸쳐 집필한 것으로 외국에서도 이 방면의 사전은 간행되어 있지 않아 그 의미가 크다. 이 사전이 나오면 동남아 이해가 보다 확충되리라 기대된다. 역시 중사전 규모.

한편 고려대에서는 민족문화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중국어대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국문과 洪植교수가 총책임을 맡아 78년 정식 착수한 이래 거의 전국의 중문과 교수가 총동원

되다시피했다.

중국어대사전은 중공, 대만, 일본, 프랑스, 미국의 중국어사전을 모델로 이들 사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언어체계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대(약 30만단어)·중(약 15만단어)·소(7~8만단어) 세가지 규모로 내용을 예정. 이중 대사전은 지금까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중국어사전이 15만단어 내외인데 비하면 세계 최대규모가 된다.

이 사전은 일반 옥편이 部首순으로 정리되어 부수를 모를 경우 번거로운데 비해 발음 기호순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편찬실장 이재훈교수는 “내년 상반기에 일단 중사전이 나올 예정”이라며 “점차 강대해져가는 중국대륙을 이해하는 데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막대한 지원 필요

흔히 사전편찬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듯한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라 표현된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외국어는 물론 우리말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어휘전문가가 없다는 점이다. 외국의 모델도 없는 경우라면 더욱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없는 동·식물이나 고유한 풍습에 관계된 단어가 나오면 여간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

또 아직 활자화되지 않은 언어들은 활자를 만들어가면서 제작해야 한다. 교정을 보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서, 반드시 전공자가 교정을 보아야 하고 설명 교정을 넘겨도 수정이 잘 안된다는 얘기도.

재정지원이 부족한 것도 큰 어려움. 막대한 시간과 인원이 소요되므로 자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출판역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선뜻 나서는 출판사가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사전의 간행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학문발전에 있어서도 그만큼 폭이 넓고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성을 요구하는 ‘언어’에 대한 작업만큼 학문연구의 요람인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교부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결국 사전편찬이란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데 받침돌이 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박경순 기자

1987/10/20 17